

지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책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다 다시 또 만나는, 그런 인연 말이다. 필자와 그런 인연이 깊은 책이 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쓴 '비잉 디지털(being digital)'이다.

처음의 인연은 1996년쯤이나 30년이나 되었다. 대학로에서 출판사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출판사에서 무척 공을 들여 만든 책을 입수한 것이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책과 함께 술도 곁들여 얻었던 것 같다. 번역자인 백육인 교수와 발행인인 박영률 대표가 '비잉 디지털'이라는 원 제목을 '디지털이다'라고 바꾼 것에 대해 흐뭇하게 말했던 언어의 뉘앙스가 기억나고, 책을 온통 은박지같은 커버로 만들어놓았던 시각의 페티시도 아주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

다음 날인가 지끈지끈한 머리를 누르며 책을 펼쳤던 것 같다. 은박지를 둘러싼 양장본이라서 책의 어포던스가 손가락과는 잘 맞았던 듯 싶다. 그러나 '비트

는 색깔도, 무게도 없다' 느니,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느니 하는, 모르는 언어 투성이에 생소했고, '대역폭(bandwidth)이란 특정 채널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란 문장에 다다르면 주눅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반짝이는 은박지를 책꽂이에 꽂아만 두고, 썰필 지나치기만 하면서 20여년을 살았다. 그 사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아이를 낳아 집도 몇 번 이사를 했지만 '디지털이다'는 어김없이 책장에서 버젓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언제가 나를 안보던 큰 일 날걸'하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만 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강의 주제는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외의 탄생'이었다.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에 의한 소외 현상을 설명하는 기회였다. 드디어 '디지털이다'를 다시 꺼내 들여 봤는데, 아뵘싸 은박지 책이 온데간데 없었다. 집을 온통 뒤지고, 그러다 못해 층주로 달려가 연구실을 또 한번 뒤집어 놓았지만 은박지는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그제서야 중고서점에 팔려나간 은박지가 기억났다. 오래되고, 해진 책이라고 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기억도 살아났다.

부라부라 도서관에서 빌린 '디지털이다'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때 머리에 들어온 문장이 지능의 거처였다. 지능은 서로 다른 두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송신기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신만을 위한 비트가 골라진다. 비트는 걸러지고, 잘 정리되어 당신에게 전달되며 당신의 집에서 인쇄된다. 그러나 편집 시스템이 수신기에 달려 있는 경우 지능은 수신기에 위치하고 송신기는 모든 비트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 전송된다.

그렇다. 이미 30년 전에 지능은 디지털 전환하여 비트로 전송되었다. 우리는 네트워크 안에 내 지능을 보관해 두었다. 마치 잃어버린 은박지 책을 도서관에서 꺼내 쓰듯이 말이다.

또 시간이 지나 이번엔 논문을 쓰려고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은박지가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디지털이다'는 보존서고에 묻혀 있었다. 30년이 지났으니 이젠 폐기처분하러나 보다. 앞으로 또 어떻게 만나나? 잠시 걱정하다 문득 생각이 머물렀다. 디지털북을 찾으면 되지.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쉽게 돈 벌 수 없다



기지 수첩 이 승 용 (금융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대 이슈는 가상화폐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최초로 7만달러를 돌파했고,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 역시 최고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상승 동력이 충분해 올해 10만달러,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서 지금이라도 코인판에 뛰어들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시장 활황을 틈타 불법 리딩방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이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불법 리딩방에 초대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SNS에서 '원금과 최소 500% 이상 수익률 보장',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 제공' 등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투자 불법 리딩방에 가입한다.

이들의 수법은 흔히 말하는 작전 종목 몇 개 추천해 일정금액의 수익을 올려주면 이후 'VIP 회원방' 가입을 유도 또는 '고액의 유료 리딩방'에 초대해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적게는 연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라고 불리는 '투자전문가' 말을 전적으로 신

뢰한다. 실제로 대화방 내용은 가관이다.

"급등 예상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면 숫자 1 눌러주세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만 원씩 더 투자하세요", "하락 전환이 예상됩니다. 숏 배팅으로 전환하세요" 불법 리딩방 리더의 말이다.

사기가 성공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코인 리딩방이 위험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피해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일급 기밀'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 일급 기밀이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거짓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자 스스로 공부하고 익혀서 투자 안목을 키운 후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lsy2665@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2일 (음 2월 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언행에 주의하라. **48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60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하자. **7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84년생** 생각잡게 일이 잘 풀려나간다.
- 37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49년생** 뜻밖의 초대가 있겠으나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 **6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다. **73년생** 비밀은 존재하지 않으니 조심. **85년생** 노력하다 보면 재기가 된다.
- 38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50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쓰자. **62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7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86년생** 인생은 자기 혼자 가는 것.
- 39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51년생** 자신이 큰 상을 받아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63년생** 대화 중에 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다. **75년생** 의욕이 앞선 지나친 살 빼기는 지친다. **87년생** 좋은 대인 관계로 오후 결과가 나타난다.
- 40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하면 잘 해결. **52년생**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산뜻하다. **64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76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임. **88년생** 부모 일을 대를 이어 추진.
- 41년생** 속이 상해도 자식이나 참아야 한다. **53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65년생**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덜 힘들다. **77년생** 말미 친구가 거러의 걸림돌이 되니 유의하라. **89년생** 절약이나 낭비는 하나의 습관.
- 42년생** 아랫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54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66년생** 배우자가 나에겐 큰 조력자이다. **78년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90년생** 일기를 쓰고 매일 나를 살펴보는 것도 미래발전.
- 43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55년생** 하나를 투자해도 세 개로 돌아오는 날이다. **67년생** 공과 사를 꼭넉게 따져야 하는 날. **79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데 내가 머무를 곳은 아니니 실망. **91년생** 오후 미팅에서 이성 만남이.
- 44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자. **56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울적. **80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일이 풀림. **92년생** 습관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
- 45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눈 돌리지 말아야 한다. **57년생**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 **69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81년생** 길이나 흉이나는 결과에 따라서. **93년생** 병든 뒤 약을 먹기보다는 병들기 전에 심비보험 들도록.
- 46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됨. **58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셔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2년생** 무슨 일이 지나치지 않도록. **94년생** 운이 좋으면 극적이고 나쁘면 지옥 아니겠는가.
- 47년생** 나르시스트는 나르시즘에서 나온 말로 자기애가 강하다는 말. **59년생** 김씨 귀인으로 마음이 즐거운 날. **71년생** 봄바람 독가에 주의. **83년생** 오늘의 주인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95년생**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자승자박自勝自縛.

김상회의四季

기술과 인간 사이



얼마 전에 귀한 벽조목을 얻게 되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하게 여진다. 인감도장을 새길 정도의 크기만 돼도 상당액을 호가하며 그 크기에 이름을 새기려면 인감 비용 역시 일반인의 통념을 뛰어넘는다. 만약 장인급의 인정을 받는 무형문화재 인사가 인감을 한다면 비용은 더 고액이 될 것이다. 부담은 상당하였지만 나를 전통 기술에 대한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을 바꾸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발에 채고 흠대받던 낫그릇과 구식으로만 느껴지던 반닫이 등 고가구는 이제 서민이 아닌 좀 산다는 사람들의 고상한 수집과 품격의 대명사가 된 지도 오래다.

중세 유럽은 '길드'라 하여 전통 상공업자들의 동업자조직인 길드에서 장인의 기술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도제 방식으로 분야마다 전문 기술과 지식을 보존하고 유지해 왔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명품 업체 대부분은 모두 유럽이 그 시원지이다. 옆 일본만 해도 기술자를 우대하여 조상 대대로 가문의 기술을 생업으로 삼으며 작은 굿속집조차 삼대, 사대 그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유지해오고 있는 정신과 자부심은 참으로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술을 천시한 사회 신분상의 계급의식으로 인하였지만 다행히도 전승 문화의 중요성과 옛 조상님들의 뛰어난 미학적 감각이 주택 양식이며 소소한 생활용품에도 아름답게 녹아있었다는 사실을 후발이라도 인식하는 것은 다행이다.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AI(인공지능)가 만들어 낸 사람이나 동작이 실제와 다른 것을 알아차리질 못하겠다. 그런데 장인의 손끝에서 발휘되고 뿜어나오는 감(感)과 기(氣)까지 AI가 모방할 수 있을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6	1	5	3			
6								
			3	6				
1			9			7	8	
7								6
8	6		2					4
		2	9					
								9
	9	6		7	5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8	2	9	1	1	9	6	7
6	9	7	2	8	1	1	1	9
9	1	1	7	9	6	2	8	8
7	9	1	1	2	8	6	9	8
9	2	6	1	8	9	8	7	1
8	1	8	9	6	7	9	2	1
1	6	9	8	7	1	8	9	7
1	7	8	6	9	2	1	8	9
2	8	9	8	1	9	7	1	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8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3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saju4000.com